

과쓰미 씨겔의 주거건축에서 보여지는 공간 및 형태의 입체적 구성에 관한 연구*

- 단독주택 작품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Spaces and Forms in Residential Architecture by Gwathmey Siegel

- Focused on Single family House Projects -

Author 전용석 John, Yong-Seok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architecture designed by Gwathmey Siegel in terms of their way of composing spaces and forms. Charles Gwathmey, one of the founders of Gwathmey Siegel, is a worldly famous architect who actively developed Neo-Modernistic architecture in his career. For this study, 15 major houses designed by Gwathmey Siegel were select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ir approaches on how to compose various spaces and forms, and how these approaches evolved as time passed. The analysis was mainly based on the drawings and photos of the houses published. The main characteristics found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elevated LDK level, split-level composition, use of framing structure, layered space, and linear galleries as a spine of circulation with collaged volumes attached. It turned out these characteristics appeared, faded away, or evolved affecting each other. In early days, Gwathmey often elevated LDK level from ground level for providing privacy, views, and also for separating private rooms. Soon they composed spaces by splitting levels. It not only helped provide privacy where needed effectively, but made space composition more interesting. As sizes of the houses they designed grew, Gwathmey came up with the framing idea for expressing his original architectural language in larger scale. With the split-level composition, the framing method represented Gwathmey's in 70's. This framing introduced layers of interior spaces, and the layers started to break down the monumental framing into individual volumes by bringing in linear spine of circulation. These characteristics helped Gwathmey Siegel develop their own architectural language.

Keywords 과쓰미 씨겔, 찰스 과쓰미, 주거건축, 공간구성
Gwathmey Siegel, Charles Gwathmey, Residential Architecture, Space Composi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9년 8월, 과쓰미 씨겔(Gwathmey Siegel) 건축설계 사무소¹⁾를 세우고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왕성하게 활동을 해오며 모더니즘을 기반으로 본인만의 건축을 발전시켜온 건축가 찰스 과쓰미(Charles Gwathmey)가 암으로 사망하였다. 국내에서의 지명도는 해외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과쓰미는 1960년대 후반에 반모더니즘 운동에 반발하여 네오 모더니즘(Neo Modernism)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것으로 평가받는 뉴욕 화이브(The New

York Five) 중 한 건축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찰스 과쓰미의 건축적 언어와 특징이 드러나는 과쓰미 씨겔의 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그들이 추구한 공간 및 형태의 입체적 구성에 대한 특징과 특히 그 발전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하여 현대 건축에 한 획을 그은 찰스 과쓰미의 건축적 어휘와 디자인 원칙의 진화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이해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1.2. 연구 방법 및 절차

1) 회사의 원 이름은 Gwathmey Siegel & Associates Architects이고 줄여서 Gwathmey Siegel 또는 GSAA라고 불렸다. 2011년에는 Gwathmey Siegel Kaufman & Associates Architects로 개명되었다.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과쓰미 씨겔과 그들의 건축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주제들 위주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과쓰미 씨겔의 설립 배경과 그들이 보여준 건축 성향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세 번째로, 과쓰미 씨겔의 작품들 중 그들이 추구해 온 공간과 형태 구성의 발달과 진행 및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나타난 특징들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되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과쓰미 씨겔이 추구해 온 공간 및 형태의 특징과 그 진화 과정에 대한 정리 및 이해를 도모하였다.

1.3. 선행연구 분석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찰스 과쓰미, 파트너인 로버트 씨겔(Robert Siegel), 그리고 이들이 설립한 회사인 과쓰미 씨겔 모두 타 뉴욕 화이브 건축가들을 포함한 현대의 유명 건축가들에 비해서 국내에서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이들의 작품이나 건축성향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역시 상대적으로 매우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김용립은 과쓰미 씨겔의 주거공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건축적 특성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배치와 평면구성에서부터 조형성, 실내공간의 고정식 가구와 재료 등 다양하게 분야를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부분 원을 사용한 곡면벽, 나선형 계단, 직선 계단, 독립적인 벽난로, 경사로 등 주택 평면의 주요 구성요소들과 메인 침실을 거실 상부에 위치시키는 단면 구성 등을 르 코르뷔지에의 형태언어를 발전시켜 적용한 예로 언급하였다.²⁾ 각 주택 별로, 또한 실내공간의 요소 별로 분석이 되어있는 연구로써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차이점은 각 주택별, 요소별 특징을 나열하기보다는 이러한 특징들이 서로 어떻게 오버랩 되고 상호간에 영향을 끼치며 시기별로 진화해 나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과쓰미 씨겔 디자인의 큰 흐름을 읽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하겠다.

김용립은 이와 함께 과쓰미 씨겔의 업무공간에 대해서도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업무 공간의 특성과 공간구성요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스 반 데어 로에 건축의 질서와 명료함, 그리고 르 코르뷔지에의 형태적 특성인 기하학적 형태의 벽과 볼트형 천장, 그리고 고정식 가구의 활용 등이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³⁾

뉴욕 화이브의 다섯 건축가들 중 이들이 펼쳤던 네오 모더니즘과 관련하여 초창기의 건축어휘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해 온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과 관련된 연구도 함께 살펴보았다. 특히 그 중에서 이선민, 조은란, 허범팔은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어휘가 나타나는 주택 유형을 3단계의 기⁴⁾로 분류하고 각 기당 3채씩 총 9채를 대상으로 선정, 각 기별로 드러나는 배치, 평면, 입면, 재료 및 색체에 걸친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리차드 마이어의 주택설계에 있어서 배치와 평면, 색채 사용 등은 초기의 언어가 유지되어오고 있으나, 빛의 유입 방식과 재료 사용 등에 있어서는 수평 루버 차양 등 자연환경을 조절하는 디자인 요소가 적극적으로 개입되면서 발전해 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⁵⁾ 또한 정혜영은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적 사고와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고 사례조사 형식으로 5개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이 빛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공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백색에 대한 강한 집착과 자기 논리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⁶⁾

<표 1>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연구 제목	연구 내용
김용립 (1996)	과쓰미 씨겔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르 코르뷔지에로부터 받은 영향과 그들의 형태언어에 대해 정리하면서 근대건축의 언어가 현대화되어가는 모습을 분석. 르 코르뷔지에의 형태언어를 발전시켜 적용한 예로 부분 원을 사용한 곡면벽, 나선형 계단, 직선 계단, 독립적인 벽난로, 경사로 등 주택 평면의 주요 구성요소들과 메인 침실을 거실 상부에 위치시키는 단면 구성 등이 있음.
김용립 (1996)	과쓰미 씨겔의 업무공간에 관한 연구	미스 반 데어 로에 건축의 질서와 명료함, 그리고 르 코르뷔지에의 형태적 특성인 기하학적 형태의 벽과 볼트형 천장, 고정식 가구의 활용 등이 업무공간에 반영되었음.
이선민 조은란 허범팔 (2011)	리차드 마이어의 주거 건축에 나타난 공간 설계 변화 연구	배치와 평면, 색채 사용 등 초기의 언어가 유지되어오고 있으나 빛의 유입 방식과 재료 사용 등은 수평 루버 차양 등 자연환경을 조절하는 디자인 요소가 적극적으로 개입되면서 발전함.
정혜영 (1999)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 경향에 관한 연구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은 빛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공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백색에 대한 강한 집착과 자기 논리를 가짐.

2. 과쓰미 씨겔의 기원 및 건축적 성향

2.1. 찰스 과쓰미와 뉴욕 화이브

찰스 과쓰미⁷⁾는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을 거쳐 예일 대학(Yale University)에서

- 1) 1기는 '기하학적 평면과 입면구성을 이루는 주거 프로젝트', 2기는 '수평을 강조하는 차양구조를 가진 주거 프로젝트', 3기는 '주거 공용 공간이 포함되는 상업 주거 프로젝트'로 구분하였다.
- 2) 이선민·조은란·허범팔, 리차드 마이어의 주거 건축에 나타난 공간 설계 변화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호 2권, 2011.04, pp.131-138
- 3) 정혜영,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학회지 21호, 1999.12, pp.182-187
- 4) 1938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출생하였다.

2) 김용립, 과쓰미 씨겔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디자인연구 제4호, 상명여자대학교, 1996
 3) 김용립, 과쓰미 씨겔의 업무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학회지 9호, 1996.12, pp.98-107

건축학석사를 받았다. 졸업 후 약 2년간 프랑스를 여행하며 특히 르 코르뷔지에 작품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이는 이후 그의 작품들에서 모더니즘에 대한 부활 및 재해석의 표현으로 드러나게 된다. 1965년에는 부모님을 위한 주택인 'Gwathmey Residence & Studio'를 설계하는데, 이 작품은 단순기하형태의 추상적 볼륨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과쓰미의 대표작들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그림 1>



<그림 1> Gwathmey 주택

과쓰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욕 하이브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이 필요하다. 뉴욕 하이브는 1969년에 함께 전시회를 열고 1972년에 Five Architects라는 작품집을 출판한 다섯 명의 건축가⁸⁾와 그들의 건축을 뜻한다. 뉴욕 하이브 건축은 기존의 반모더니즘 운동이 상업주의 성향으로 치우치면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던 1960년대에 이에 반발하며 1920년대의 백색 추상주의적인 모더니즘 건축의 부활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당시 뉴욕 하이브의 건축성향은 레이트 모더니즘(Late Modernism) 또는 네오 모더니즘(Neo Modernism)으로 분류되고 있다.

2.2. 과쓰미 씨겔 건축설계 사무소

찰스 과쓰미는 서로 알고 지냈던 로버트 씨겔⁹⁾과 함께 1968년에 뉴욕 맨해튼에서 과쓰미 씨겔(Gwathmey Siegel & Associates Architects)이라는 건축설계 사무소를 함께 설립하였고 총 400 프로젝트가 넘는 왕성한 활동을 최근까지 펼쳐왔다. 2009년 8월에 과쓰미는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씨겔은 회사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소수의 경력사원들과 함께 사무실을 이끌어오다가 2011년에 이르러서 뉴욕의 건축가이자 개발업자인 진 카우프만(Gene Kaufman)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결성하였다.¹⁰⁾

과쓰미 씨겔의 건축적 특징과 성향은 실질적으로 찰스 과쓰미 개인의 건축적 철학과 어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작인 Gwathmey 주택은 과쓰미가 씨겔과 동업을 시작하기 전이었던 1965년에 설계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 Gwathmey 주택으로

부터 잉태된 건축적 어휘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씨겔은 디자인보다는 주로 회사운영 역할의 비중이 컸으며 특히 주거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은 과쓰미가 독립된 팀을 운영하며 지휘를 맡고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과쓰미는 다른 뉴욕 하이브 건축가들과 마찬가지로 르 코르뷔지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김용림은 그의 연구에서 “구아쓰미 씨겔은 르 코르뷔제의 형태언어를 풍요롭게 발전시켜 사용하였는데 자신들의 문법에 맞추어 사용함으로써 르 코르뷔제의 작품과는 구별되는 자신들의 작품을 발표해 왔다.”¹¹⁾고 했으며 “곡선 벽과 벽난로, 계단과 램프(Ramp)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들의 주택작품에서 르 코르뷔제(Le Corbusier)의 형태를 읽을 수 있다면 구조적 질서와 창의 리듬을 존중하며 곡선 벽의 사용이 절제된 이들의 업무공간에서는 오히려 미스 반 데르 로에(Mies van der Rohe)의 ‘명료성’을 찾아 볼 수 있다.”¹²⁾라고 하였다.

과쓰미 씨겔의 작품들은 주택, 아파트 인테리어, 오피스 빌딩, 학교 시설, 미술관, 병원, 도서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 초기인 1960년대 후반에는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을 소규모 개인주택이 차지하였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단독주택 외에도 오피스와 상점 인테리어, 집합주택, 학교 캠퍼스 시설, 아파트 인테리어 등의 작품들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과쓰미 씨겔의 건축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독주택의 규모는 초기의 소규모를 벗어나서 대부분이 중규모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추세는 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로 들어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단독주택 프로젝트들은 후기로 올수록 규모가 급증한 대신 포트폴리오 상에서의 비중이 예전에 비해 줄어들면서 상업건물과 학교시설, 정부기관시설, 기존 주거공간의 개조, 미술관 등의 프로젝트가 크게 늘게 되었다.

3. 과쓰미 씨겔 주거건축의 공간 및 형태구성

3.1.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한 대상으로는 과쓰미가 발전시켜온 공간적 구성과 형태미의 방법 및 발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독주택 작품들로 한정하였다. 그 중 완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작품들은 대상에서 배제하였고, 초기작에서

8) 여기에는 과쓰미를 포함하여 리처드 마이어(Richard Meier),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 마이클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 그리고 2000년에 작고한 존 헤이덕(John Hejduk)이 포함된다.

9) 로버트 씨겔은 뉴욕에 위치한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에서 건축을 공부하였으며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에서 건축학 석사를 부여받았다.

10) 로버트 씨겔은 현재 과쓰미 씨겔 카우프만(Gwathmey Siegel Kaufman & Associates Architects)의 공동 운영자로 활동 중이다.

11) 김용림, 구아쓰미 씨겔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디자인연구 제4호, 상명여자대학교, 1996, p.187

12) 김용림, 구아쓰미 씨겔의 업무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회지 9호, 1996.12, p.98

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서 완공된 대표적인 단독주택 작품들 중 총 15점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이에 대한 자료수합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논문에 주택명과 함께 표기된 연도는 해당 주택의 완공연도가 아닌 계획이 시작된 연도임을 밝힌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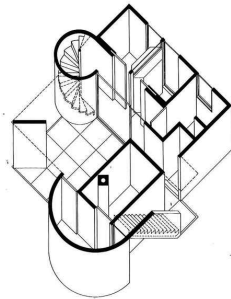
<표 2> 연구대상 주택작품 리스트

작품명	계획연도	장소
Gwathmey 주택	1965	Amagansett, New York
Goldberg 주택	1967	Manchester, Connecticut
Cooper 주택	1968	Orleans, Massachusetts
Cogan 주택	1971	East Hampton, New York
Cohn 주택	1972	Amagansett, New York
Haupt 주택	1976	Amagansett, New York
Benenson 주택	1976	Rye, New York
Taft 주택	1977	Cincinnati, Ohio
de Menil 주택	1979	East Hampton, New York
Garey 주택	1983	Kent, Connecticut
Opel 주택	1985	Shelburne, Vermont
Oceanfront 주택	1988	Malibu, California
San Onofre 주택	1993	San Onofre, California
Malibu 주택	1993	Malibu, California
Hilltop 주택	1993	Austin, Texas

3.2. 공간 및 형태 구성의 항목별 특징

(1) 지상레벨에서 들어올려진 거실 공간

과쓰미가 씨겔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기 전이었던 1965년에 그의 부모님을 위해 디자인한 Gwathmey 주택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직까지도 손꼽히는 추상적, 기하학적 조형미로 인해서 과쓰미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주택을 보면 거실과 식당 등을 포함하는 공적인 공간이 지면레벨에 자리 잡고 침실 등의 사적인 공간이 2층에 올려지는 당시 가장 일반적인 주택의 공간구성방법과 달리, 거실과 주방, 그리고 식당이 지면으로부터 들어 올려져서 2층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로 인해 거실 및 식당 공간은 전방과 함께 외부로부터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한다. 주진입은 외부계단을 통해서 거실이 위치한 2층으로 바로 이어지며 1층의 손님침실과 화장실, 작업실 공간은 이로 인하여 그들만의 영역이 허락되는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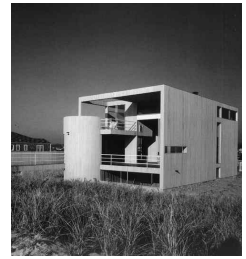


<그림 2> Gwathmey 주택

이와 같은 공간구성 방식은 이 작품 이후에도 대표적인 주택 작품들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 Cooper 주택(1968)과 Cohn 주택(1972)에서도 이와 동일한 과쓰미 씨겔의 접근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에서는 모두 기본적으로 지상 층에는 아이들 또는 손님을 위한 공간이 위치하고, 주진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2층에는 2개 층 높이의 거실과 식당 및 부엌, 그리고 최상층에는 거실을 내려다보는 주침실과 경우에 따라 서재가



<그림 3> Cooper 주택



<그림 4> Cohn 주택

함께 위치한다. 주택의 규모가 커지면서 반 층 레벨들을 경사로로 잇고 있는 Cogan 주택(1971)의 경우에서도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LDK 레벨이 1층의 아이들 침실 상부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처럼 거실을 포함하는 공적공간을 지면으로부터 띄워서 위치시킨 것은 르 코르뷔지에로부터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과쓰미는 특히 르 코르뷔지에의 빌라 사보아 주택이 자신의 건축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음을 직접 밝힌 바 있는데,¹³⁾ 그로 인한 공간구성의 방법이 초기작인 Gwathmey 주택에서부터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반 층 레벨차이를 활용한 공간의 입체적 구성

나무가 우거진 경사지가 대지로 주어진 Goldberg 주택(1967)을 계획하면서 과쓰미 씨겔은 반 층 레벨차이를 활용한 입체적 공간구성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는데, 경사에 순응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와 같은 방법은 곧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공간적 장치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과쓰미 씨겔은 주진입 레벨에 거실과 부엌 및 식당을 위치시키고 이곳을 기점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반 층 아래에는 아이들 침실, 반 층 위에는 주 침실과 서재를 두었다. 아이들 침실에서 또다시 반 층 아래 레벨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을 두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부를 위한 상층부와 아이들을 위한 하층부의 독립적인 조닝이 가능토록 하면서 동시에 이 사적인 공간들이 모두 거실 공간으로부터 동선을 통한 격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공간구성방식은 이후에 Cogan 주택(1971)과 Haupt 주택(1976)에서도 유사하게 보여지며, Benenson 주택(1976)과 Garey 주택(1983)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었다. Cogan 주택의 공간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아이들의 침실이 위치하며 주진입이 이루어지는 지상 층에서부터 반 층씩 엇갈리는 공간구성이 직선형 경사로의 적용으로 이루어진다. 지상 층에서 아이들의 침실을 바라보며 반 층을 오르면 주 침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몸을 돌려 반 층을 더 오르면 앞서 언급되었



<그림 5> Goldberg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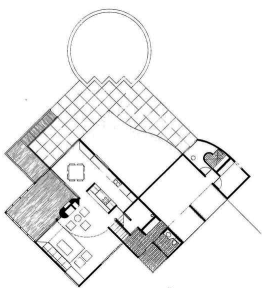
13) Gwathmey Siegel Houses, The Monacelli Press, 2000, p.15

던 Gwathmey 주택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택 내의 공적인 공간인 거실, 부엌과 식당이 지면으로부터 1개 층 들어 올려져서 위치한다. 여기에서 또다시 경사로로 반 층을 오르면 주 침실의 상부에 위치한 서재로 통하는데, 서재는 동시에 주 침실의 내부에서 계단을 사용하여 독립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지상 층의 아이들 침실에서 계단으로 반 층을 내려가면 주 침실 하부에 위치하는 놀이방으로 연결된다. 이 주택에서 주된 동선은 경사로이다. 경사로로 반 층을 오를 때마다 위치하는 참은 순차적으로 짜여진 각각의 공간들로 인도하며 그 여정은 전망을 제공한다. Cogan 주택에서의 반 층 레벨을 이용한 공간구성이 Goldberg의 그것과 다른 점은, 경사진 대지에 순응하기 위한 장치로써가 아니라 순수하게 공간구성을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으며, 계단이 아닌 직선형 경사로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Haupt 주택 역시 Cogan 주택과 매우 유사한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 이 경우에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레벨은 해수면으로부터 15피트(4.57미터) 상부에 위치해야 한다는 용도지역 조례의 적용으로 인하여 거실 레벨이 지면에서 반 층 높이만큼 들려지면 서 자연스럽게 반 층 레벨의 활용이 적용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림 6> Haupt 주택

Benenson 주택과 Garey 주택에서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구성방식을 보여준다. 이 두 주택의 가장 큰 공통점이자 특징은 주택을 이루는 매스가 둘로 나뉘지면서 다시 중첩되고 있는 것이다. 주 매스와 부 매스로 나눌 수 있는데, 주 매스는 거실 및 주방과 식당, 그리고 주 침실 등의 대형 공간을 소화하며, 부 매스는 차고, 아이들 침실 및 손님방, 그리고 서재와 지붕테라스로 구성된다. 이 두 개의 볼륨이 반 층 레벨만큼 어긋나면서 중첩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주택의 주진입 공간 및 수직 동선을 도맡는 계단실이 위치하게 된다. 여기에서 계단실은 반 층을 오를 때마다 참을 이용해서 각각의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이끄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공간적인 필터 역할을 맡는다. 이로 인해서 아이들의 침실과 주 침실은 수평적으로는 가까우나 수직적 어긋남으로 인해 각각의 영역을 가질 수 있으며, Cogan 주택에서처럼 모든 사적 공간들이 공적인 거실공간으로부터 적절한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게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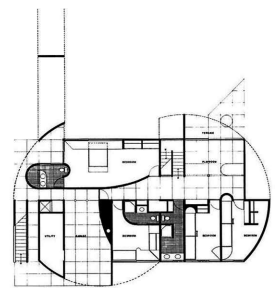


<그림 7> Benenson 주택

(3) 프레임 형식을 차용한 스케일적 접근

과쓰미 씨결의 초기 주택작품들에서 보여진 가장 강한 건축적 어휘는 원초적인 기하학적 형태의 볼륨들로 이루어진 초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아름다움이다. Gwathmey 주택과 Goldberg 주택, 그리고 Cooper 주택 등의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정육면체, 반원형 볼륨, 45도로 잘려나간 삼각형 등과 같은 기하학적 볼륨들이 깎여나가고 더해지고 하면서 주택의 전체적인 형태를 이룬다. 이와 함께 실외와 실내 모두를 삼나무패널로 마감하면서 선과 면, 개구부가 추가적인 장식이 배제된 채 순수하게 읽힐 수 있는 디테일을 적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형태들의 순수성과 추상성이 강하게 강조되게끔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주택 프로젝트들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게 되었고 이와 같은 건축적 어휘는 더 이상 예전의 본질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과쓰미는 “작은 주택에서의 건축적 언어를 큰 주택에 단지 확대하여 적용시키는 것은 그 언어의 본질, 혼합성, 그리고 그로 인한 긴장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Steel 주택



<그림 8> Steel II 주택

I과 II(1971)를 그 예로 들은 바 있다.¹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시기의 주택들에서부터는 기존의 기하학적 볼륨들이 본연의 스케일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구조적·시각적 프레임을 사용하여 이들을 담아내는 형태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다양한 볼륨들은 건축적 어휘의 본질과 상호간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커진 스케일에는 이들을 아우르는 대형 프레임이 대응을 한다는 이 아이디어의 잉태는 당시에 과쓰미가 디자인하고 있었던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의 위그홀(Whig Hall) 프로젝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는 화재로 외벽만 남아있는 네오클라식풍의 구조체 안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담아달라는 건축주의 요청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과쓰미는 남아있는 외벽 구조체를 프레임으로 간주하고 그 안에 그의 건축적 어휘를 성공적으로 담아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9> Whig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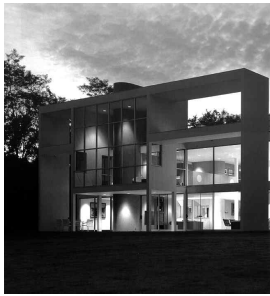
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방법을 보여주는 첫 번째 대표적인 주택작품으로 Cogan 주택을 꼽을 수 있다. 이 주택에서 기존의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볼륨들은 대형 스케

14) Gwathmey Siegel Houses, The Monacelli Press, 2000, p.97

일을 대변하는 프레임 형태의 틀 안에 담기기도 하고 그 틀을 관통하여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서 파쓰미 씨겔은 두 가지의 상이한 스케일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나름의 언어를 찾아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법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파쓰미 씨겔의 대형 주택들에서 대표적인 접근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Taft(1977)와 de Menil(1979) 주택에 이



<그림 10> Cogan 주택



<그림 11> Taft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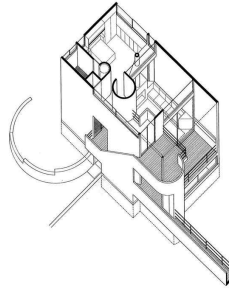
Opel(1985)과 San Onofre(1993) 주택을 거치면서 파쓰미 씨겔은 프레임 방식의 변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전의 방식에서는 대형 스케일에 대응하는 프레임이 나름대로의 영역과 어휘를 강하게 표현함과 동시에 휴먼스케일적인 주거공간을 떠안으며 대지에 올려지는 것이었다면, 진화된 접근방법에서는 독립적인 형태의 볼륨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대지에 반응하고 그로 인해 공간이 정의되면서 건물이 대지 및 주변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프레임은 외형적으로 드러난다기 보다는 다양한 볼륨들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Hilltop(1993)에서 특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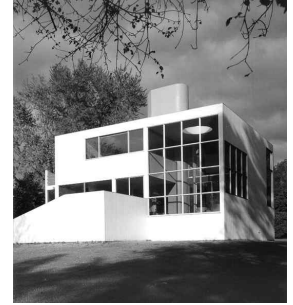
<그림 12> Hilltop 주택

(4) 공간적 레이어의 활용

파쓰미 씨겔의 주택작품에서 관찰되어지는 여러 특징들 중 하나로 수평적 전개에 따른 공간의 레이어링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기의 주택은 Cohn 주택(1972)으로, 이 주택은 경사지에 위치하며 Cogan 주택(1971)에서 잉태되어진 프레임 방식의 구성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작품이다. 여기에서 프레임의 방향은 Cogan 주택의 그것과는 달리 개방감이 큰 전면 및 후면이 좁고, 불투명성이 강한 옆면이 넓은 형태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구성되는 공간들의 깊이가 강조되어있다. 이와 함께 실내에서는 장변 방향으로 수평이동시 순차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적 레이어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데, 지상 층에서는 아이들 침실-놀이방-손님방, 2



<그림 13> Cohn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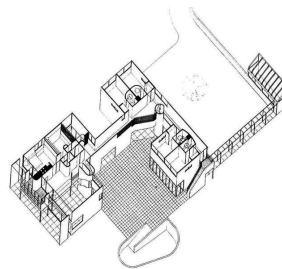


<그림 14> Benenson 주택

층에서는 부엌과 식당-거실-야외데크, 그리고 3층에서는 주 침실-서재를 포함한 거실상부-테라스 순으로 각 기능을 가진 공간들이 투명하지만 겹을 이루며 순차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처럼 커를 이루는 실내공간의 구성방식은 건물의 외형을 이루는 프레임 형식이 발전해감에 따라서 함께 강조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Benenson(1976) 주택에서는 실내 배란다라는 새로운 건축적 요소가 기존의 실내공간과 외부 사이에 위치하면서 전이적 레이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공간의 레이어링은 Taft 주택(1977)과 de Menil 주택(1979)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Taft 주택에서는 주진입이 이루어지는 게이트 매스와 주택의 주 공간들이 위치하는 메인주택 매스가 분리되어 있으며 이를 들어올려진 선형 갤러리가 수평적으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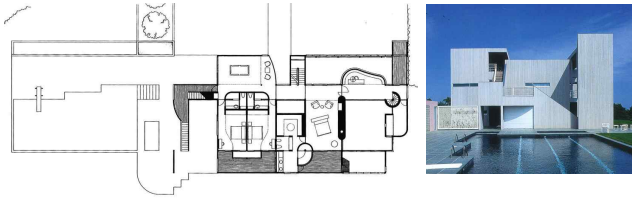


<그림 15> Taft 주택



시키고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서는 보다 명확한 공간의 순차적 레이어를 경험할 수 있다. 주진입구를 통하여 차고 및 아이들과 손님을 위한 침실이 위치하고 있는 첫 번째 레이어를 지나면 메인주택으로 연결되는 다음 레이어를 만나는데 지상 층에서는 아케이드, 2층에서는 그 상부인 갤러리로 구성되어있다. 이 곳을 지나면서 세 번째 레이어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는 메인 주택의 주거공간이다. 마지막으로 1층에서는 거실의 외부공간, 2층에서는 실내 배란대를 품고 있는 브리 솔레이 역할의 최남단 프레임이 네 번째 레이어를 장식한다. 이와 같은 파쓰미 씨겔의 공간적 레이어링에 대한 강조는 de Menil 주택으로 넘어오면서 한층 더 명료해진다. 주진입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레이어는 전 층에 걸친 수직적 온실로 구성이 되면서 대지의 주위 환경을 실내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건물을 대지에 안착시키고 있다. 이를 지나쳐서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 주택에서 수직 및 수평 동선을 전달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으며,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거실, 침실, 주방, 욕실 등을 포함한 주거용 공간들, 그리고 Taft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남쪽의 브리 솔레이와 1층의 실내 베란다를 겸하는 프레임이 마지막 레이어를 구성하고 있다. Taft와 de Menil 주택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특징은, 실내 공간 레이어링의 강조로 인해서 과쓰미 씨걸의 형태적 건축어휘였던 단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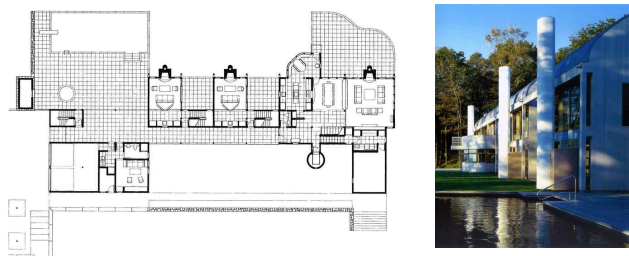


<그림 16> de Menil 주택

프레임 구조에 분열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프레임 형식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의 어휘로 진화하는 전조현상으로 볼 수 있다.

(5) 선형 갤러리 공간을 활용한 공간 및 형태의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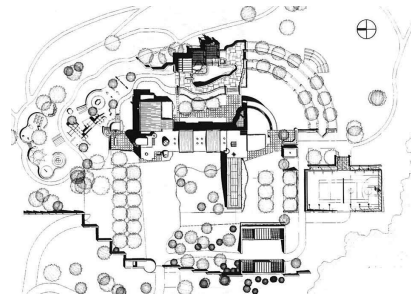
과쓰미 씨걸은 초기에는 경사로나 계단 등의 수직 동선을 활용하여 반 층 또는 한 층 레벨의 차이로 집 주인의 영역과 아이들 및 손님을 위한 영역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물론 이 당시에는 주택들의 규모가 비교적 중규모 이하였던 것과 함께, 프레임이 개입되는 공간구성이 도입되면서 그 프레임 내에서 공간들이 한정지어졌던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공간의 레이어가 강조되고 하나의 거대한 프레임 구조가 차츰 약해지면서 동선의 척추 역할을 하는 선형 갤러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이후 과쓰미 씨걸 주거건축의 형태적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Taft 주택(1977)에서 보여진 선형 갤러리는 프레임 형식이 강한 주택 내에서 사적인 공간들을 수평적으로 이격시킴과 동시에 주택을 구성하는 볼륨을 분할하면서 스스로 하나의 공간적인 레이어의 구실을 하였는데, Opel 주택(1985)에서는 종전까지 주로 사용되었던 프레임 형태가 약화되면서 대신 과빌리온 형식의 독립된 볼륨들과 함께 이와 유사한 선형 동선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주택에서 중추의 역할



<그림 17> Opel 주택

을 하는 이 선형 동선은 지상 층에서 아케이드 형식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Taft 주택에서처럼 아이들 및 손님용 구역과 메인 주택용 공간들을 연결함과 동시에 이격하면서 각자의 영역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손님을 위한 숙소 공간들이 독립적인 형태로 이 아케이드 공간에 접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변화는 Opel 주택에 이어 3,000m²가 넘는 대형 저택인 Hilltop 주택(1993)에서 한결 두드러져 보인다. 여기에서는 척추 역할을 하는 선형 갤러리가 두 개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주거용 매스와 가족모임 및 비즈니스용 매스를 양 끝단에서 연결해주면서 Opel 주택의 아케이드처럼 일련의 공간들과 연계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과쓰미 씨걸의 주거건축은 후기로 접어들면서 종전의 모뉴멘탈적이고 대지 및 주변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차츰 개별적인 형태들이 마치 콜라주를 이루는 듯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찰스 과쓰미가 사망할 때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이들의 주된 디자인 언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림 18> Hilltop 주택

4. 결론

뉴욕 화이브 중 한 명으로서 모더니즘의 부활 및 재해석을 시도하였던 찰스 과쓰미가 로버트 씨걸과 함께 남긴 주거작품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추구해온 건축적 공간 및 형태 구성의 방법과 그의 진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주택들과 각각에 해당되는 특징들을 계획연도순으로 <표 3>에서 정리를 하였다. 여기에서 보이듯이, 항목별로 초기나 또는 중기에 주로 적용되어지는 특징도 있는 반면, 전 시기에 걸쳐서 널리 보여지는 과쓰미 씨걸의 건축언어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항목별로 성행하는 시기가 타 항목의 그것과 겹치면서, 상호간 영향과 함께 진화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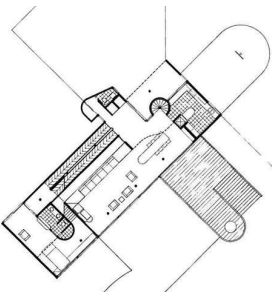
과쓰미 씨걸의 주거건축은 단순기하형태의 입체감 및 볼륨의 절삭을 통해 표현되는 추상적이고 초현실적인 형태의 표현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 당시에는 주택의 형태가 대지 또는 주변과 소통하거나 순응한다기 보다는 추상적인 오브제로 범비지 않는 평평한 대지 위에 놓여지

<표 3> 각 특징들의 시기별 적용도

작품명 (계획 연도순)	들어 올려진 공적공간	반송형 공간 구성	프레임식 형태 구성	공간적 레이어	갤러리를 이용한 공간분할	독립된볼 룸들의 결합
Gwathmey	■					
Goldberg		■				
Cooper	■					
Cogan	■	■	■			
Cohn	■		■	■		
Haupt		■	■			
Benenson		■	■	■		
Taft			■	■	■	■
de Menil			■	■		
Garey		■				
Opel					■	■
Oceanfront				■		
San Onofre						■
Malibu		■				
Hilltop					■	■

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주거 내에서 가장 공적이며 이용 빈도가 높은 거실과 부엌, 식당 부분을 지면 레벨로부터 띄움으로써 그 공간에 프라이버시와 전망을 제공하고, 또 이를 사적인 공간들의 수직적 분리를 위한 장치로도 사용하였다.

주택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경사가 있는 대지도 다루게 되면서 레벨차이를 공간구성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반 층 레벨을 이용한 실내공간의 입체적 구성이 주요한 장치로 자리를 잡게 된다. 대지의 경사에 순응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거실 공간을 지표면으로부터 띄우기 위해서, 또는 한정된 거리 안에서 사적인 공간들을 효과적으로 분리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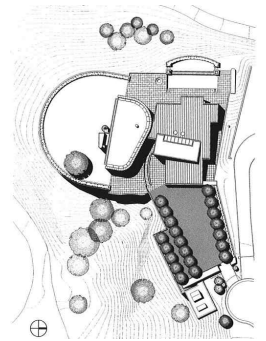
<그림 19> Cogan 주택

이와 동시에, 점차 커지는 주택의 규모는 기존에 과쓰미 씨겔이 사용해오던 형태적 어휘의 진화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프레임 형식의 차용을 들 수 있다. 기존의 단순기하학적 형태들을 증가된 규모에 맞춰서 스케일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버리고, 프레임 형태의 시각적 틀을 제공하면서 그 안에 볼룸들이 담기는 이 형식은 과쓰미 씨겔의 1970년대 주택을 대표하는 특징이 된다.

프레임 형식이 발전하면서 그로 둘러싸인 내부공간이 각자의 기능과 영역에 따라 자연스럽게 켜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주택 이용자는 동선에 따라 겹쳐 있다가 순차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의 레이어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간의 레이어화는 프레임 형식과 함께 점차 강조되어지다가 197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는 오히려 역으로 프레임 형식에 균열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이로 인해서 모뉴멘탈적인 단일 볼룸이 주를 이루던 과쓰미 씨겔의 주택 형태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선형 갤러리 형식의 동선 체계에 일련의 매스들이 나열되면서 결합하는 구성방식이 등장하고, 이와 함께 프레임식 구성이 약해지면서 단일 볼룸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형태의 볼룸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공간을 창출해 내는 형태로 진화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변화는 그 이후로 과쓰미 씨겔의 주거건축 뿐 아니라 상업건 축에서도 감지가 되며, 이와 같은 디자인 경향은 과쓰미가 세상을 떠난 2009년까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과쓰미 씨겔의 후기를 장식하였다.



<그림 20> San Onofre 주택

본 연구를 통해서 건축가 찰스 과쓰미와 그가 몸담았던 과쓰미 씨겔 건축설계 사무소의 건축적 어휘, 그의 전개 및 진화에 대한 이해를 그들의 주거공간 분석을 통하여 시도해보았다. 이 연구가 국내에서 찰스 과쓰미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참고문헌

1. 임석재, 네오 큐비즘과 추상 픽처레스크, 북하우스, 2001
2. Charles Gwathmey and Robert Siegel Buildings and Projects 1964-1984, Harper & Row, 1984
3. Gwathmey Siegel & Associates Architects Selected Works, Images Publishing, 2010
4. Gwathmey Siegel Houses, The Monacelli Press, 2000
5. Gwathmey Siegel Buildings and Projects 1992-2002, Rizzoli, 2003
6. Gwathmey Siegel Buildings and Projects 1965-2000, Universe, 2000
7. 김용립, 구아쓰미 씨겔의 업무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회지 9호, 1996.12
8. 김용립, 리차드 마이어 주택과 마리오 보타 주택의 비교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5호 통권58호, 2006.10
9. 김용립, 구아쓰미 씨겔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디자인연구 제4호, 상명여자대학교, 1996
10. 이선민·조은란·허법팔, 리차드 마이어의 주거 건축에 나타난 공간 설계 변화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 2호 통권85호, 2011.04
11. 이성훈, 리차드 마이어의 미술관건축 공간구성 특성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6호, 2001.03
12. 정혜영,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회지 21호, 1999.12
13. 최재훈·김문덕, 리차드 마이어의 전시공간에 나타나는 계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 11권 2호, 2009.10

[논문접수 : 2012. 04. 18]
 [1차 심사 : 2012. 05. 14]
 [게재확정 : 2012. 06. 08]